



보도	2023.7.26.(수) 조간	배포	2023.7.25.(화)		
담당 부서	조사1국 조사총괄팀	책임자	국 장	고영집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조성우	(02-3145-5582)
	조사2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이승우	(02-3145-5650)
		담당자	팀 장	김회영	(02-3145-5663)
	조사3국 조사1팀	책임자	국 장	한재혁	(02-3145-5100)
		담당자	팀 장	장정훈	(02-3145-5106)

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경과

- ◆ 금융감독원은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하여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('23.6월말 기준)
 - 관련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 상당이며 혐의자 33인을 검찰 이첩
- ◆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, ①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(62.5%), ②코로나19 관련 테마사업을 표방한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(80%), ③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(74.4%) 확인
- ◆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 후 엄중 조치하는 한편, 사모CB 공시심사 강화 및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,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임

1 기획조사 개요

- (추진배경) 사모 전환사채(사모CB)는 발행이 용이하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사모CB 발행·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.
-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, 금융감독원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*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* 『사모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.』(23.1.19. 보도자료)

- (조사대상) 금감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·전환 시점의 공시·주가 등을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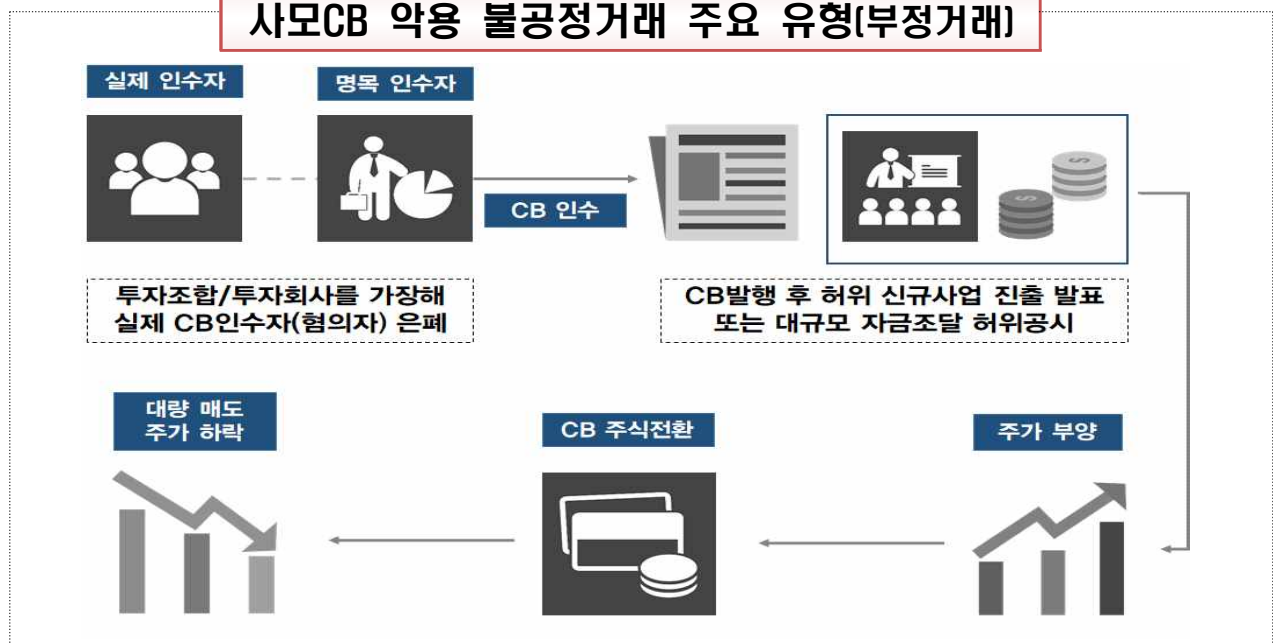
불공정거래 수단으로서의 사모CB 악용 유인(예시)

구 분	내 용
발행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 가능 - 증권신고서의 경우 자금 사용목적, 회사 경영상황 및 영위 사업 등과 관련한 위험요인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
완화된 CB 공시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모CB 대용납입*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 부실자산을 대용납입하는 사례 발생(현재 개선) * 상장기업이 CB·BW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(비상장주식, 부동산 등)으로 납입 받는 것
CB 전환가격 조정 제도 (리픽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식 전환가격을 재조정하는 리픽싱(refixing) 옵션이 도입되어 있으며,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%보다 낮추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정관 등 기재시 예외적으로 최저한도보다 하향 조정 가능 ⇨ 부당이익 편취에 유리

② 조사 진행상황

- **(조사실적)** 금감원은 '23.1~6월 중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.
 - **패스트트랙**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입니다.
 -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익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 상당이며,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하였습니다.
- **(혐의유형)** 조사완료된 14건의 경우 부정거래 10건, 시세조종 3건,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. (복수 혐의는 각각 산정)
 - **부정거래**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하여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 혐의가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.
 - **시세조종**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.
 - **미공개정보**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前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있었습니다.

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(부정거래)



③ 사모CB 사건 주요 특징

※ '23.6월말 기준 조사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◆ [혐의자]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다수 연루

- 조사대상자 중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등 [조사대상 40건 중 25건(62.5%)]
 -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
◆ [혐의수법] 테마주 투자심리 등을 악용한 부정거래

-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하였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[부정거래 혐의 : 40건 중 32건(80%)]
 - 백신·치료제 개발, 진단키트·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등 허위의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, (25건)
 -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·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,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. (23건)
- 한편,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. [40건 중 27건(67.5%)]
 - 이는 실제 인수주체(불공정거래 세력)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·투자유치로 위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◆ [투자자피해]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피해 야기

□ 조사대상 기업 상당 수가 상장폐지, 관리종목 지정,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. [39개사* 중 29개사(74.4%)]

* 조사대상 사건 40건의 관련 기업 수는 총 39개사

○ 관련 종목 중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, 관리종목 지정* 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습니다.

* 지정사유 : 상장폐지 사유 발생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, 자본잠식 50% 이상 등

○ 한편,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·순이익이 30%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개사에 달하였습니다.

사모CB 조사대상 기업 현황

상장폐지	관리종목		경영악화
	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	자본잠식 50% 이상	
4개사 (10.3%)	13개사 (33.3%)	1개사 (2.5%)	11개사 (28.2%)

* 중복 해당사건의 경우 상장폐지 > 관리종목 > 경영악화 順으로 기재

4 향후 계획

□ 금융감독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 CB 기획조사를 진행·완료하는 한편,

○ 공시·회계·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□ 이와 동시에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하여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
자본시장 부문 협력 대응 현황

◆ 금감원은 조사·공시·회계·검사 등 자본시장 쏠 부문이 참여하는 『사모CB 합동대응반』을 구성하고 사모CB 관련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소관 업무에 활용 중

- (공시부문) 법상 최저한도(최초 전환가의 70%)보다 낮은 전환가격으로 사모CB를 발행하여 주주이익을 훼손하고 대주주 등의 부당이익 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기업 점검 (필요시 조사 착수)
- (회계부문) '21사업연도 중 사모CB 과다발행 기업을 대상으로 CB 관련 주석기재 및 회계처리 적정성*을 점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을 재무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
 - * ❶ 특관자 거래 주석기재, ❷ 담보제공내역 주석기재, ❸ 매도청구권 회계처리, ❹ 자금 사용제한 유무, ❺ 비상장주식 등 회계처리
- 또한, 심사·감리대상 기업 중 사모CB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CB회계처리 적정성을 추가 중점 심사
- (검사부문) 사모CB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 테마검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모CB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점검 등

가 [A사] 허위의 신약 개발사 인수 및 코로나 치료제 개발

주 혐의자	위계 내용	사실관계	범죄결과
<p>기업사냥꾼 3인</p>  <p>⇒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이첩</p>	<p>■ 신약개발사 인수 추진</p> <p>- 인수대상 회사가 개발 중인 의약품의 임상시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홍보</p> <p>■ 제휴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업에 투자</p>	<p>■ A사와 신약개발사 간 MoU 최종 미합의</p> <p>■ A사의 임상투자 진행 중단</p> <p>■ 임상시험 통과 가능성 낮음</p> <p>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</p>	<p>부당이득 약 120억원</p> 



- **(혐의자)** 기업사냥꾼 등으로 악명이 높았던 불공정거래 전력자 3인*이 코로나19 및 바이오 관련 허위의 신규사업 추진 등 공모

* 3인 포함 10여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전력 보유

- **(허위의 신규사업 진출)** 신약개발사 인수 및 동사 개발 약품의 임상시험 통과 가능성 홍보, 제휴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정보 홍보를 통해 A사 주가를 부양
- **(조사결과)** A사와 신약개발사 간 MoU 최종 결렬, A사의 임상투자 중단, 임상시험 통과 가능성 과장 홍보,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확인
- **(부당이득)** A사 사모CB 전환주식을 고가매도해 약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

➡ 부정거래 혐의자 3명 검찰 이첩


나 [B사] CB인수 허위 공시 및 허위의 방역사업 등 추진

주 혐의자	위계 내용	사실관계	범죄결과
기업사냥꾼 등 3인  ⇒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이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CB인수) 다수의 투자자가 CB를 인수한 것처럼 공시 ■ (신규사업) 코로나 19 관련 방역사업 및 치료제 개발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주총소집 공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혐의자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명 인수 ■ 신사업 관련 구체적 추진계획과 실적이 없음 	 부당이득 약 100억원

- **(혐의자)** 기업사냥꾼 2명과 상장사 실질 사주 등 3명은 전환기일이 도래한 B사 사모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
- **(허위의 CB발행 공시)** B사 계열사 자금으로 사모CB를 취득한 후, 공모자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한 후 다수의 투자자가 B사의 사모CB를 인수한 것처럼 공시
- **(허위의 신규사업 진출 추진)** B사는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치료제 개발 등 신사업 진출 관련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주총소집 공고
- **(조사결과)** 자금추적 등 결과, CB를 인수한 실제 주체는 불공정거래 혐의자들로 나타났으며, 이들은 CB 주식 전환 후 전환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차익을 획득한 사실도 은폐
 - 주총소집 공고를 통해 기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코로나19 관련 신사업 진출의 외관을 형성하였으나,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이 없음
- **(부당이득)** B사 사모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

➡ 부정거래 혐의자 3명 검찰 이첩

다 [C사]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 등

주 혐의자	위계 내용	사실관계	범죄결과
<p>前 대표이사 등 5인</p>  <p>⇒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이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규모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면서 자금조달 목적을 바이오 사업 추진으로 기재 ■ 바이오 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수자는 납입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■ 바이오 사업 관련 조직·인력 확보 사실 없음 	<p>추정 부당이득 수 백억원</p>

- **(혐의자)** C사 前 대표이사 등 5인은 경영권 인수 후 주가를 부양시켜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공모
- **(허위의 자금조달 계획)**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나 필요성이 없음에도 신규 바이오 사업 추진에 사용될 대규모 자금이 단기간에 유입될 듯한 허위의 호재성 상황을 연출
- **(허위의 바이오 사업 진출)** 실제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바이오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, 사모CB 발행 시 자금조달 목적을 바이오 사업 추진 등으로 기재
- **(조사결과)** 사모CB 인수자가 ‘페이퍼 컴퍼니’ 등으로 구성되어 자금 납입 능력이 없다는 사실, C사가 바이오 사업 관련 조직·인원을 배치하거나 바이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
- **(부당이득)** 주가부양을 통해 수 백억원 대의 부당이득 편취

➡ 부정거래 혐의자 5명 검찰 이첩